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 기반 조성

정 부는 통일정책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국민적 합의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들을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열린 통일포럼」 개최

참 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대화를 통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통일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통일부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대면하여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답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1회 「열린 통일포럼」은 2003.3.2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12.17일까지 서울 6회, 지방 9회(대전, 대구, 부산, 제주, 울산, 광주, 청주, 춘천, 전주), 미국 3회(뉴욕, 워싱턴, 시카고)에 걸쳐 총 18회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사회·토론자는 총 68명으로 학계 33명, 언론계 12명, 시민단체 관계자 15명, 종교계 5명, 기타 분야 3명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청중은 18회에 걸쳐 총 4,680명이 직접 참석하였다.

포럼의 홍보·안내를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열린 통일 포럼”란을 신설하고 안내문과 개최결과, 포럼 동영상을 게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4월 이후 12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의 “열린 통일포럼”란에 대한 접속건수는 총 16,017건으로 월평균 2,002회의 접속을 기록하였다.

특히 지방포럼은 상대적으로 통일관련 정보가 부족한 지방주민들에게 통일정책추진 및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직접 의견을제시할 수 있는 참여 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럼은 통일부장관 보고, 지정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반 청중의 질문 및 제안은 통일부장관이나 배석한 관계 실·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답변함으로써 쌍방향 대화로서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다.

일반청중의 질문·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남북 교류협력분야(사회·문화·인적 교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핵문제·6자회담, ▲통일교육·홍보,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평화변영정책 순서이며 총 343건의 질문과 제안이 18회의 포럼을 통해 취합되었다. 이러한 질문과 제안은 각 해당 부서에 전달되어 향후 대북정책 및 기타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3년 「열린 통일포럼」 개최현황]

순 서	일시 장소	주 제	사회·지정토론	참석 인원
1	3.27 서울	평화변영정책과 한반도	김영수(사회,서강대), 강태호(한겨레신문), 도준호(명지대),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용섭(국방대)	300
2	4.18 대전	평화변영정책과 한반도	이계희(사회,충남대), 박건호(대전매일), 정승룡(목사), 이숙자(대전주부교실), 최문갑(대전일보)	600
3	4.24 서울	평화변영정책 추진현황	전인영(사회,서울대), 백승주(국방연구원), 서재진(통일연구원), 유호열(고려대),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150
4	5.28 대구	평화변영정책 추진현황	김태일(사회,영남대), 금병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박영석(대구MBC), 배한동(경북대), 이장환(목사)	270
5	5.29 서울	평화변영정책과 남북경협	이영선(사회,연세대), 고광석(한국무역협회),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신상복(서전어패럴), 이종근(LG상사)	120
6	6.18 부산	평화변영정책 추진현황	정용하(사회,부산대), 공보경(경성대), 방영식(목사), 임동규(부산YMCA), 정순형(부산일보)	410
7	6.27 서울	평화변영정책과 대북지원	안인해(사회,고려대), 김형석(한민족복지재단), 이강렬(국민일보),이기범(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재운(이산가족재추위)	120
8	7.16 제주	평화변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고성준(사회,제주대), 강문규(한라일보), 방청록(탐라대), 장성철(녹색제주연구소), 한공익(남제주문화원)	300
9	7.23 서울	평화변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현황	안인해(사회,고려대), 고유환(동국대), 류길재(경남대 북한대학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정성장(세종연구소)	160
10	8.6 울산	평화변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주홍(사회,울산대), 김성태(시공스님), 박훈탁(위덕대), 송귀홍(경상일보), 이희자(울산YMCA)	550
11	9.4 광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임채완(사회,전남대), 서영진(광주일보), 임현모(광주교대), 정영재(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00

순 서	일시 장소	주 제	사회·지정토론	참석 인원
12	9.29 뉴욕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120
13	9.30 워싱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100
14	10.2 시카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90
15	10.27 서울	평화번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현황	고유환(사회,동국대), 박종철(통일연구원), 김연철(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김경민(통일교육문화원)	190
16	12.3 청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은호(사회,청주대), 김도태(충북대), 정문섭(중부매일), 주서택(목사)	300
17	12.10 춘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홍광엽(사회,한림대), 심중섭(강원대), 김성기(강원일보), 유현옥(여성민우회)	250
18	12.17 전주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상휘(사회,전북대), 김창희(전북대), 차종선(전주경실련), 이재호(전주KBS)	250

2.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은 여론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종래의 특정 이슈나 사건중심의 비정기적인 조사를 벗

어나 분기별 정기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여론에 관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현안 발생시 즉각적인 여론수렴을 위해 패널구축을 통한 E-mail 여론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E-mail 여론조사에서 패널의 유효응답자 수는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연구원 및 교수) 3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평화번영정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주제로 6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선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내용과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내용을 종합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 주요사안 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당정협의, 야당 방문 등을 통해 정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였다.

3.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현안문제를 놓고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네티즌 상호간 그리고 발제자와 활발한 토론을 펼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3~4회 개최되며, 네티즌은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네티즌을 우수토론자로 선정하여 백두산·

금강산 여행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2000년 9월부터 기존의 PC통신 전자공청회를 인터넷 전자공청회로 대체하였으며, 2003년 말까지 인터넷 전자공청회를 총 11차례 개최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평가」 등을 주제로 3차례의 개최를 통해 총 2,11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차례의 공청회에서 1회 평균 12,000여건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표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003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구 분	개 최 기 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제1차	3.24 ~ 4. 6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91	5,654
제2차	6.23 ~ 7. 6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825	11,504
제3차	11.12 ~11.25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평가	1,001	19,118

또한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이해시키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이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총 2,749편의 작품

이 접수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참여의 물결 따라 평화로 번영으로”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함께 누릴 번영의 길” 등 입상된 작품들을 전국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전광판과 주요도시 옥외전광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번영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영상(플래시)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평화번영정책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입상된 작품들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일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 공모전 개최 현황]

공모전	공모주제	당 선 작
평화번영정책 캐치프레이즈 공모 (2003.5.15~6.4)	o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	o “참여의 물결 따라 평화로 번영으로” o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함께 누릴 번영의 길” o “화해협력 뿌리위에 열매 맺는 평화번영”
평화번영정책 동영상 공모 (2003.9.17~10.17)	o 풍요롭게 잘 사는 한반도 o 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o 통일후 한반도의 미래상	o 정은아 '평화를 달리자' o 권구선 '통일이 되면' o 이용일 '통일평화번영'

4.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평화통일 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통일정책 자문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통일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2003년 7월 이홍구 의장을 위시하여 통일고문 30명으로 「참여정부」 제1기 통일고문회의가 구성되었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자문·지역여론수렴활동 등 통일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3년의 활동실적은 고문회의 2회, 워크숍 1회, 대통령 오찬 간담회 1회 등이다.

[통일고문 명단]

성명	직책
이홍구(의장)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 (前) 주미대사
김법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민하	중앙대 명예교수, (前)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숙희	한국식품영양재단 이사장, (前) 교육부장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前) 민예총 이사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희	호남대 객원교수, (前) 노동부장관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前) 평민당 부총재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오기평	세종재단 이사장
오자복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균범	동신대 총장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성립	한국예총 회장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 (前) 노동부장관
이현숙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순승	울산대 석좌교수, 13·14·15대 국회의원
최창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前) 카톨릭대학교 총장
최학래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 (前) 한겨레신문사 사장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 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3년 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되었다.

2003년에는 평가회의 2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했다.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3.3.1~2004.2.28

성명	직책	성명	직책
백종천 (위원장)	세종연구소 소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
고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노진환	한국일보 주필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도준호	명지대 초빙교수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 원장
민병석	강원대 초빙교수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박용옥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조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연하청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장		

다.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

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다.

200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한해 총 21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3.7.1~2004.6.30)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9명)	인도지원 분과위 (10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통일교육 분과위 (10명)
전득주 (숭실대)	박영규 (통일연구원)	이김현숙 (여성평화의집)	안인혜 (고려대)	장달중 (서울대)	전태국 (강원대)
길정우 (중앙일보)	이중규 (고려대)	문영희 (제주도YWCA)	고성준 (제주대)	김영수 (서강대)	김성운 (단국대)
박영호 (통일연구원)	이호 (한밭대)	백영옥 (명지대)	박윤숙 (수원여대)	김용호 (인하대)	김재한 (한림대)
백학순 (세종연구소)	임현진 (서울대)	신현운 (연세대)	신 율 (명지대)	박재민 (연세대)	김재홍 (오마이뉴스)
이신화 (고려대)	윤덕희 (명지대)	이돈관 (연합뉴스)	서재진 (통일연구원)	송영선 (국방연구원)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양승함 (연세대)	양병기 (청주대)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이강열 (국민일보)	이계희 (충남대)	이인숙 (세종대)
장명봉 (국민대)	정은숙 (세종연구소)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원웅 (관동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이원섭 (한겨레신문)
전경옥 (숙명여대)	현성일 (통일정책연구소)	전일수 (인천대)	이종훈 (명지대)	현인택 (고려대)	윤인진 (고려대)
하용출 (서울대)		전현준 (통일연구원)	이창현 (국민대)		정숙경 (한국여성개발원)
함인희 (이화여대)			오혜정 (천주교서울대교구)		정현백 (성균관대)

* 음영표시는 위원장

5.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80년대까지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여 국민참여의 일환으로 통일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특히 1998년 9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를 망라하여 결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8.15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통일운동단체는 총 113개로서, 활동 목적에 따라 통일활동 전반(42개 단체), 연구(28개 단체), 교류·협력(17개 단체), 인도지원(25개 단체), 교육(1개 단체)으로 구분된다. 2003년도에는 총 10회의 신규단체가 허가되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민간 통일관련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23건, 장관상 7건, 장관표창 8건 등을 지원하고 총 38건의 판문점 견학을 주선하였다. 특히 민화협은 통일관련 국제평화대회, 8·15 민족통일행사, 청소년 통일한마당, 통일문제토론회, 지역순환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정부는 민화협의 활동과 관련하여 총 4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03년도의 민간통일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민간단체간

남북공동행사 개최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3.1절 민족공동행사’(3.1-2, 서울), ‘8.15 남북공동행사’(8.14-17, 평양), ‘개천절 남북공동행사’(9.30-10.5, 평양),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10.23-27, 제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공동행사들은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 회복 및 접촉면 확대에 기여하였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2003.12.31 현재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민족통일협의회	한양수	대한민국팔각회	주형철
민족문화통일회	최창순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김형주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이무용
민주통일촉진회	이현우	한국미래연구학회	신윤표
한민족세계선교원	조준상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김금중
통일기념사업회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우강호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수성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이수성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고정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중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완	세계평화여성연합	문난영
민족통일에스라온동협의회	조동진	통일맞이	이재정
한민족통일촉진협회	권희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김태유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평화통일꾼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21세기통일봉사단	홍일화	민족통일연합중앙회	안광양
통일건국민족회	권천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김덕창
국민정신중흥회	이명규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박영록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박태남	민족통일촉진회	정형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유종관	북한연구소	김창순
평화연구원	김창규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우리연합	최민자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경훈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백천통일시대연구원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광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변형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시중	북방문제연구소	최영택
남북체육연구학회	이종영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한태선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민족통일선교협회	신광준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정주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경실련통일협회	김성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민족문화교류재단	강도원
세계평화청년연합	김봉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법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현	한민족한마음운동본부	주종기
남북소년통일교류회	정경석	남북나눔	김성수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재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김연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우윤근	북한인권시민연합	윤 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현섭	탈북자동지회	홍승경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재정	좋은벗들	최석호
북한의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송낙환	남북사랑나눔기협의회	최승강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재식	통일교육협의회	임종혁
미래전략연구원	이 철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 민족연합	홍사덕
평화운동연합	이수성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남북사회문화연구원	최병보
민족화합통일운동연합	박봉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이학래
새천년남북통일운동협의회	주명주	범민족동질성회복추진회	윤영모
평화통일을위한시민연대	이장희	서울평양학회	김동규
통일미래연구원	한광옥	통일정보센터	박종화
서울 평양문화교류협회	김주팔	동북아곡물지원협회	심재성
밀알을 심는 사람들	성호정	통일미래사회연구소	박명서
민주주의정치철학연구소	오윤진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김운근
평화 통일탈북인연합회	장인숙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장상래
다리공동체	이영석	생명나눔운동본부	박영득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이영석	좋은씨앗	임향자
두리하나	김종순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추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가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통일홍보의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 및 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내용 발굴에 힘썼다.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해설 자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과 같은 북한사회에 대한 설명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인터넷은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고 정보화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홍보가 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2002년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정홍보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초점」 코너를 신설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쟁점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마당」과 「참여마당」을 분리하여 온라인 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참여마당」에 ‘정책제안’, 인터넷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Cyber poll’ 등을 보강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적기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영문홈페이지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Press releases」(보도자료), 「Events and Issues」(통일/북한 관련 소식), 「Major Speeches」(대통령, 장차관 연설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최신 뉴스를 알리고 있으며, 「Chronicles」(남북관계 연표)를 신설하여 1945년 8월부터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Open Forum」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쌍방향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홍보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제안마당을 강화하여 분기별 우수제안을 발표■포상하고 제안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창구를 확대 개편하여 주요문서목록과 각종 결재문서,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전자민원창구를 이산가족, 교류협력, 일반민원으로 분류■체계화 시켰다.

대국민 정책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영상(VOD)방」, 「전자달력」, 「부서별 바로가기」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2003년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플래쉬 영상으로 대표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 하였으며 9개 메인 메뉴를 6개로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자료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탈사이트로 위상을 확실히 하며 행정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나. 통일부 연계 홈페이지

통일부는 또한 북한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축적해 놓은 <남북회담사료 : dialogue.unikorea.go.kr>, 이산가족교류절차 등을 다루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reunion.unikorea.go.kr>, 남북교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 go.kr>,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70,000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소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영화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 행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북한영화 소개」 코너를 신설하여 북한영화의 줄거리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을 통해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북한관련 DB」와 「북한/통일정보」 메뉴를 신설함으로써 통일부 발간물의 원문 검색과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교과서, 북한영화,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 실상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서비스가 개시된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 dialogue.unikorea.go.kr>는 1971년 이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군사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사회문화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 있다.

주요 메뉴는 남북회담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정리해 놓은 「남북회담사」, 남북간의 최종 합의서와 해설자료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연표·남북대화·남북회담개최현황·논문 등 책자와 자료를 정리한 「회담자료실」, 판문점 견학신청·판문점내 남북연락기구 등을 알 수 있는 「판문점」, 영문자료인 「South-North Dialogue」(남북대화 영문판), 「Intra-Korean Document」(영문 합의서) 등이다.

2003년에는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정보교류 및 가족상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12월말 기준 12만 2천여명의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8·15 상봉을 계기로 시작하여 2003년말까지 8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과 생사확인·서신교환 추진의 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초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고령 이산가족들을 고려해 음성안내 지원을 받아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영상편지, 서신을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유도·지원하고 향후 교류에 대비하였으며, 남북자정부 열람·언론 기사 검색 등의 검색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따른 면회소 상봉을 추진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3년 개통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원의 신청과 승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물자 반출입 내역을 전자문서거래(EDI) 형식을 통해 on-line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주요 메뉴로는 북한 및 남한 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등이 있으며, 신원진술서 등 각종 부가서류 제출을 비롯하여 신청, 승인, 조회 및 승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 관련 민원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의 급증으로 교류협력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중 2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교육서비스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개통되었다. 2003년 한해 방문자가 97만 여명에 이르는 등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교사와 학생 등 통일교육 관련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통일배움터」 코너는 ‘통일만화’, ‘가상북한여행’, ‘북한의 명절’, ‘통일게임’ 등 초·중등학생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보조교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통일 의식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대상코너의 특화를 통해 ‘청소년 통일 Q&A’, ‘숙제도우미코너’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도서자료’, ‘일반자료’, ‘대학 통일교육자료’, ‘동영상모음’, ‘사진갤러리’로 구성된 「자료실」은 통일교육연구자 및 학교·사회통일교육 실시자(교사)에게 매우 유용한 코너이다.

한편, 원격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2003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2004년부터 각급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부 운영 홈페이지 현황]

사 이 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unikorea.go.kr	통일소식,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북한이해, 자료실, 통일부안내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안내, 자료실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사료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정보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교실, 북한청소년백과, 자료실, 참여마당

다. E-mail 홍보서비스 제공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고자 기존의 인쇄물인 「통일속보」를 컴퓨터 파일형태로 E-mail 배포시스템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E-mail 배포시스템은 2000년 4월 교사, 통일문제전문가, 통일교육 이수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말까지 약 51,000명의 주소록을 포함하고 있다. 대북정책해설자료, 회담 결과해설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매주 2~3회 배포하고 있다.

E-mail 배포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자료 발간자와 자료수요자 사이의 쌍방향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주요 E-mail 자료 배포현황]

자 료 명	시 기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해설자료	1월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 결과해설자료	1월
임시도로통행 군사보장합의서 결과해설자료	1월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해설자료	4월
한미정상회담 결과해설자료	5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회의 결과해설자료	5월
대북 쌀 제공 관련 결과해설자료	5월
제7차 이산가족 상봉 관련자료	7월
개성공단 착공식 해설자료	7월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해설자료	7월
제2차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결과해설자료	8월
4대 경제합의서 발효 관련 해설자료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회의 결과해설자료	8월
1차 식량분배 현장확인 결과보고자료	10월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해설자료	10월
금강산면회소 건설 해설자료	11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 결과해설자료	11월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결과해설자료	12월
남북경제협력실무협의회 등 결과해설자료	12월

2. 홍보자료 발간·보급

2003년도 홍보자료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남북관계의 추진성과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보급되었다.

각종 홍보자료는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고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홍보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시·군·구 일선 행정기관과 다중 집합장소인 항만, 공항, 철도역, 은행 등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하철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길」이란 홍보용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의 중요한 사진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화보집을 펴내 통일 관련 사료로서 활용되고 국민들이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생동감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주요 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발간부수(수량)	형 태
'2003 통일백서」	7,500	책자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63,000	책자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증보판	50,000	책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00	리플렛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2003」	1,000	화보집
'2003년 남북관계 평가 및 분야별 추진현황」	1,500	자료집
대북정책 영상교재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100	영상자료
북한바로알기 영상교재 「남북문화 이해지」 등 5종	1,500	영상자료
지하철 공익광고방송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1	영상자료
평화변영정책 해설 영상자료 「평화와 번영의 길」	각 900	비디오, CD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대언론 공보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외신 인터뷰 및 유관국 방한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가. 보도자료 배포 및 대언론 브리핑

등록기자단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배포된 보도자료는 통일정책 분야 19건, 정보분석 분야 3건, 남북교류협력 분야 49건, 인도지원 분야 4건, 통일교육 분야 5건, 남북회담 분야 53건, 대변인 논평 4건, 인사발령 15건 등 총 152건이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장관의 주례브리핑을 실시하였는 바, 2003년 말까지 총 12회의 주례브리핑이 있었다. 그 외에 통일정책 분야 27회, 정보분석 분야 23회, 교류협력 분야 24회, 인도지원 분야 19회 등 총 107회의 분야별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나.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계기별로 국내외 신문, 월간지 등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통해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사 논·해설위원 간담회, 신문·잡지 기고 등을 통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2003년 한해동안 방송출연 26회, 언론 인터뷰 54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다. 통일부 인터넷뉴스 운영

정부는 통일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인터넷 신문인 「국정브리핑」(www.news.go.kr)내에 「통일부 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뉴스」코너는 ‘정책속보’, ‘보도자료’, ‘언론보도해명’, ‘포토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속보란에는 장■차관 정례브리핑 내용, 남북회담 개최현황, 개성공단 개발 ■ 금강산 관광사업 ■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현황,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지원 현황,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내용 등 통일정책추진 관련 중요한 내용을 현장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총 64건을 게재하였다.

보도자료란에는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로 내용을 전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게재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총 56건을 게재하였다.

언론보도 해명란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론문과 해명자료를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정책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총 6건을 실었다.

포토뉴스란에는 현장사진을 통하여 통일부의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국민에게 현실감을 줄 수 있는 뉴스 총 18건을 게재하였다.

통일뉴스는 앞으로 신세대의 시각으로 본 남북문제를 카툰 형식으로 표현하여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남북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남남북녀」를 게재하는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라. 통일부 등록기자단 운영

통일부는 1990년 5월 10일부터 정부중앙청사 5층에 통일부 출입기자실을 설치■운영해 왔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등록기자단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 브리핑 실시, 인터뷰 주선 등 보도지원을 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등록기자단은 상주 기자 56명, 비상주 기자 39명, 외신 48명 등 총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홍보 추진

가. 국제협력의 강화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2002년 말 북핵문제 발생 이후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통일부장관은 2003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국(뉴욕·워싱턴·시카고)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 내 대한반도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고위인사 및 전문가를 면담하고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주도층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였다.

방미 기간동안 Columbia 대학 「통일특강」(9월 29일), Korea Society 주최 뉴욕 경제인·금융인 대상 설명회(9월 30일), Woodrow Wilson Center 주최 한반도전문가 대상 설명회(10월 1일) 그리고 시카고외교협회(CFR) 회원 대상 설명회(10월 3일)도 병행하였다. 이 같은 기회를 통하여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북한의 변화와 개혁 유도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북한의 변화실태를 설명하였다.

통일부 차관은 2003년 11월 20일 일본을 방문하여 외무성 사무차관, 내각관방성 부장관 등을 면담하고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7일 호주를 방문하여 외무성 차관을 면담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03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통일부 관계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방문국 당·정 인사와의 실무정책협의를 통해 한반도 현안 및 대북정책 추진 관련 이해를 제고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동 기간동안에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및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을 주제로 「통일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부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TCOG)에 참가(5회)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과 정책협의·조율에 기여하였다. 또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에 참석하여 ▲북핵 불용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을 통한 안보위기의 재발 방지 등 우리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관국가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주요 방한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다. 2003년에 통일부를 예방한 주요 고위 외국정부 인사는 Helen E. Clark 뉴질랜드 총리(7월 25일), Nambaryn Enkhbayar 몽골 총리(11월 21일)와 Clalmy Rey 스위스 외무장관(5월 21일), 李肇星 중국 외교부장(8월 14일), Gunter Verheugen EU확대부장관(9월 22일) 그리고 중국·이탈리아·싱가포르·스웨덴의 외교부차관 등이 있다.

정당·의회 및 주요 국제기구 인사로는 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3월 13일), Bill Frist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일행(4월 17일), Hartmut Nassauer 유럽·한국의원외교협회장 등 유럽의회 의원 대표단 일행(4월 24일), J. Kassum 세계은행(IBRD)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부총재(5월 15일), Suarez Del Toro 국제적십자사 총재(7월 30일), Maurice Strong UN 사무총장 특별자문관(8월 28일), Giorgio de Giuseppe 이탈리아·한국친선협회장(9월 18일), Harmut Koschyk 독·한의원친선협회장(11월 3일) 등이 있다.

또한 주요 남북회담 개최 직후에 미·일·중·러 및 EU국가 등 주요 주한 외교사절을 통일부에 초청하여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국회차원의 다양한 국제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제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다. 조웅규 의원을 단장으로 김덕룡·김운용·추미애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은

2003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 까지 독일·스페인 등 5개국을 방문하여 의회대표, 각계 유력인사, 전문가 등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일·중 3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2003년도에 통일주재관들은 주재국 정부·의회 및 주요 한반도문제 관련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재국들의 지지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확산을 도모했다.

아울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문제, 교류협력사업 등의 현지 상담창구 역할도 맡고 있다.

나.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평화번영정책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지닌 주요국가의 관계인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거나 또는 학술회의 등에 적극 참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

제사회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였다. 2003년 9월 21일 復旦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설명했으며, 12월 19일 人民대학 주최 국제워크숍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OECD 등 방한 경제계 인사 및 국제기구인사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 및 지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2003년 2월에 국민의 정부 5년의 성과를 종합·정리한 「평화와 협력의 실천」(「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리플렛을 영어 및 일본어로 총 500부를 발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3월에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해설자료,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을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총 13,000부 발간하였고, 12월에는 영문판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8,000부를 추가 발간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월간으로 발간하였던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은 7월부터 「Korean Unification Newsletter」로 개칭하고, 주간으로 전환하여 E-Mail로 발송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일한국」과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 한반도문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2003.1.31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고
정기 (월간)	1998~'03.6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 2,000	영어
정기 (주간)	'03.7~현재	뉴스레터 (e-mail)	Korean Unification Newsletter	1,200여곳	영어
부정기	2002.5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계기)	팸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太陽政策- 平和と協力のために	5,000	일어
			陽光政策爲了和平與合作	5,000	중어
	2002.9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계기)	리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平和と協力を目指す太陽政策	5,000	일어
			追求和平與合作的陽光政策	5,000	중어
	2003.2	책자	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300	영어
			平和と 協力の 實踐	200	일어
	2003.3 (새 정부 출범 계기)	소책자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10,000	영어
			蘆武鉉政府の 平和繁榮政策	2,000	일어
			蘆武鉉政府的和平繁榮政策	1,000	중어
	2003.12	소책자 (수정판)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8,000	영어

[민간단체 발간 해외홍보자료 배포 현황]

2003.12.31 현재

기관명	연 도	간 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 간	통일한국	매호 1,1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 간	Korea and World Affairs	매호 2,100

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홍보

2003년 1월 현재 재외동포 사회의 규모는 60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남북한 총 인구의 8%를 상회하는 큰 규모이며, 600만 재외동포의 거주지역을 보면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의 4강에 90%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한민족의 융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통일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서울과 해외 주요 도시에서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사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3년에는 11월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호주·일본·중국·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대상 통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지역에서의 「열린 통일포럼」을 2003년 9월 29일 뉴욕, 9월 30일 워싱턴, 10월 2일 시카고지역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하고 있는 배경과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평화번영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는 11월 20일 도쿄, 11월 21일 오오사카에서 평화번영정책과 남

북관계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중국·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10개처 동포 신문·방송사에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통일칼럼」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게재·방송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 현황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동포단체가 주관하는 한글 백일장, 신춘문예 공모 등의 민족문화 행사와 현지 대학·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문화민족으로 평가받으며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2003.12.31 현재

구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 650명	통일 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 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울	6개국 230명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제12차	2002.7.4	일본 도쿄	5개국 170명	한반도 평화 협력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13차	2003.11.18	호주 시드니	5개국 130명	평화번영정책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3절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고 학교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그리고 사회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부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남북화해 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범국민적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통일교육 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2월에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년)」을 수립하였다.

통일교육기본계획은 2004~2006년 3개년 동안 추진할 정책목표로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통일교육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통일교육 내용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해 12월 통일문제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통일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완한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왔다.

2004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참여정부 출범 및 2003년에 진행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필요성, 한미동맹(주한미군)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교육의 3요소인 자·정·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지도원칙을 ‘목표 → 지도원칙 → 실천방향 → 지도상 유의사항’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도방법 전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주요내용]

주 제		핵심내용
통일교육의 목표와과제	통일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 분단역사 극복 및 사실상의 통일상태 달성 기여 ○ 민족구성원 전체의 역량 결집 통로
	통일교육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知)
	통일교육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 안보관 정립(情) ○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意)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통일문제의 성격과 평화정착의 중요성」순으로 기술 ○ 분단의 배경과 폐해 규명 및 통일의 당위성을 기술
	북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문화·교육,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변화의 양상, 대남정책의 변화, 대외정책의 변화, 북한변화의 의미
	통일환경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통일 환경변화의 의미
	남북관계 개선노력 및 국가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개선노력,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국가안보 ○ 평화변영정책 설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화 ○ 튼튼한 안보와 자주국방태세의 필요성, 한미동맹에 균형적 인식
	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한반도통일의 촉진 및 장애 요인, 우리의 통일방안, 통일국가의 미래상 ○ 통일된 분단국의 통일환경과 한반도 통일여건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 장애요인 기술 ○ 통일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사회 실현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상황 이해와 판단능력의 신장, 통일에 대한 주인 주인의식과 열린 자세 함양, 적극적인 통일외지 확립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3요소(지·정·의)에 따라 설정된 통일교육 목표에 적합하게 지도원칙을 제시
	통일교육의 실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교육, 행동지향적 교육,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평생교육,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 지식구성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지도상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시 유의할 사항 제시

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설치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2003년 8월에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3기 위원회는 통일교육관련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합의에 바탕한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3년 9월과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년)」, 「2004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2003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인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명단]

2003.12.31 현재

구 분	성명·소속
당연직	정세현 통일부장관,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조건식 통일부차관, 정상명 법무부차관, 유보선 국방부차관,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 오지철 문화관광부차관, 박길상 노동부차관, 안재현 여성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국회의장 추천	구분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윤성태 가천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 이경숙(李慶淑)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李景淑)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
통일부장관 임명	오건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은죽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정석홍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최완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부원장

라.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및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통일 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침의 새로운 정립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 7·8명의 통일 및 통일교육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자	주 제
1차	6. 27(금)	o 주제 : 통일교육지침 총론 및 학교분야 지침개발 방향
2차	7. 3(목)	o 주제 : 통일교육지침 총론 및 사회분야 지침개발 방향
3차	7. 15(화)	o 주제 : 통일교육지침 총론 및 군사분야 지침개발 방향
4차	7. 24(목)	o 주제 : 통일교육지침 총론 및 언론분야 지침 개발방향
5차	9. 5(금)	o 주제 : 학교분야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방향
6차	10. 30(목)	o 주제 : 통일교육지침 재정립 방안
7차	12. 9(화)	o 주제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과제

2. 통일교육 실시

가. 분야별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등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환경 및 남북 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정립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강화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심화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춘 on-off 연계교육 강화 △학교 및 사회통일 교육 지원 체계화 등에 역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에는 총 45,497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역은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018명,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4,610명 (On-Off 연계교육인원 255명 포함),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9,152

명, 공직자 1,056명, 사회각계인사 1,251명, 국내·외 순회교육 28,410명 등이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에 대한 통일교육 수요는 2002년에 비해 대폭 증가(7,870명→9,152명)하였다. 이러한 교육 수요 증대에 대하여 정부는 통일교육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의에 맞는 강의제목과 내용을 조정하고 초청 교육뿐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환경’,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 ‘북한의 최근 동향과 변화 전망’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고, ‘남북관계 주요 현안과 대책’,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사회통일교육 표준 강의안 연구 및 발표’ 등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1)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지역사회 및 사회교육기관·단체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은 통일교육전문위원을 비롯하여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2003년도에는 총 1,0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 현안과 대책’,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핵 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합의 창출방안’ 등을 전문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중등 교사, 교육전문직, 교장·교감(초·중등), 대학생반(교육대생·사범대생·북한학과생), 대학교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3일~2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2003년에는 총 4,61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온라인교육(On line)과 집합교육(Off line)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정규 강좌 3회 2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3) 남북교류협력 관계자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과정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종사자,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각종 남북공동행사 참가자, 경수로 건설인력 등을 대상으로 1~5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북한방문 안내’, ‘방북 경험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추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2003년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종사자,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각

중 남북공동행사 참가자, 경수로 건설인력 등 9,15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4) 공직자 통일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통일교육은 4-5급 중견관리직 공무원, 6-7급 중견실무직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신임관리자(행시), 보안경찰, 입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일~2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2003년도에는 1,056명이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동향’,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5) 사회 각계 인사 통일교육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03년도에 총 25회에 걸쳐 1,2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재일민단중앙본부와 협조하여 73명의 재일민단 간부를 대상으로 ‘9.11테러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통일환경’,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과 교민정책’,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민사회에서 우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다.

(6) 국내외 순회교육

국내순회교육은 국내 각 지역의 주요 인사나 사회교육기관·단체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외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국내외 순회교육은 총 28,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28,136명에게 실시하였다. 해외순회교육은 동남아시아(방콕·마닐라·싱가포르, 11.9~15)와 미주지역(애틀란타·휴스턴·멕시코시티, 11.20~29)에서 재외동포 총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사이버 통일교육

통일교육원은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특히 2003년에 정부는 원격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 정비를 위해 원격 교육용 서버 도입, 원격학사관리시스템 개선, 온라인 강좌콘텐츠 신규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격 교육연수

원'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통일교육원은 기존의 출석교육은 물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재택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통일교육 기관으로서 앞으로 초등 교사들에게 원격 통일교육 직무 연수(30시간, 2학점 과정)가 가능하여 재택연수를 통해 집합연수에 비해 수업결손, 경제적 비용 등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용자 편의 제고와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과 메뉴를 새롭게 바꾸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코너를 특화하여 '청소년 통일Q&A'와 '숙제 도우미'코너를 신설하였고, '통일게임(5종)'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아울러 일반 사용자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이 북한이야기' '동영상 모음' '통일 갤러리'등 일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였다.

끝으로,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네티즌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통일교육 공모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으로 2회째를 맞는 '통일4행시 공모'의 경우 응모자수가 전년대비 178%가 증가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사이버 통일퀴즈대회'의 경우 1만 6천여명이 응모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2004년에도 올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눈높이까지 고려한 다양한 양질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원격 통일교육의 차질 없는 실시 등 통일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2003년 한해동안 연간 방문자수가 97만 여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천 5백 여명에 달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 통일교육 지원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1)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각종 정보·자료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담당 장학협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학협의회의 상반기 연찬회(5.19~20)에서는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방향을 재정립토록 하였고, 하반기 연찬회(10.28~29)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 남북관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30개교(초등학교 9, 중학교 14, 고등학교 7)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패널제작용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통일정보신문 등 주·월간 정기간행물을 지원하

였으며, 시범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초청교육(5.19~21)을 통해 통일교육 관련 사례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구룡초등학교의 「통일 체험관」과 충남 연기군 소재 소정초등학교 등 4개교에 전시용 자료 및 북한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12월에는 전국의 우수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9명)를 대상으로 금강산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시범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 북한관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부문별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교육감상, 통일교육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수상작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작품집을 발간하여 학교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2003년도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2003.12.31 현재

시 도	학교명	과 제 명
서울	옥수초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
	동마중	ICT를 활용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통일대비 교육
	대진고	현장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서서울 정산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통일 대비를 위한 통일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부산	하남중	통일교육 운영
인천	연평중	교과 및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배양
광주	광주남초	통일교육의 다양한 교육방법 접근을 통한 통일 대비 능력 신장
	천곡중	다양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남북의 이질감 해소 방안
대전	가양중	토의 토론 학습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경기	파주 문산북중	내고장 통일 환경의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능동적 통일 의식 함양
강원	동해 중앙초	통일교육 대비 능력 신장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
	춘천 후평중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고성 대진고	교과학습 및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배양
충북	수성초	남북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가덕중	새천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남북한 화해 협력 의식 함양
	옥천상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교육모델 탐색
충남	태안중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통일 대비 능력 신장

시·도	학교명	과 제 명
전북	오수초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의식 함양 방안
	북흥중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장계공고	학생중심의 활동을 통한 통일 대비 능력 신장
전남	여수 문수초	다양한 통일 관련 학습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함양
	무안 청계중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남북동질성 회복 방안
경북	용황초	시사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포항중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민족화해 및 평화통일 의지 함양
	포항고	시사토론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문제 판단능력 배양
경남	고성 개천초	남북한 생활문화탐색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거창중	통일이해자료 활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고양
	진해고	북한문화 바로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
제주	서귀포여중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과정개발 및 적용
중앙	삼죽초	탈북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2)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 대학생 통일교육에 기여코자 대학통일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1994년에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상호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93개 대학이 협의회에 가입해 있다.

2003년도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93개 대학을 4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연구용역을 발주(4.15~9.30)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과 대학사회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 제22회를 맞이하였다.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의 공모기간에 총 44편이 응모하였으며, 논리성, 창의성, 적실성, 유용성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부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작인 최우수상(1)·우수상(2)·장려상(3) 등 총 6편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2003. 12. 31 현재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강릉대	통일문제	동의대	법정	숭의여대	우리문화	중앙대	민족통일
강원대	사회과학	명지대	사회과학	신라대	국제지역	진주교대	초등교육
건국대	민족통일	목원대	문화발전	아주대	사회과학	창원대	사회과학
경기대	통일안보	목포대	통일문제	안동대	사회과학	천안대	통일경제
경남대	극동문제	배재대	통일문제	안양대	복지행정	천안외대	민족
경북대	평화문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여수대	통일문제	청주대	국제협력
경산대	평화전략	부산외대	국제관계	연세대	통일	충남대	통일문제
경상대	통일문제	상명대	통일문제	영남대	통일문제	충북대	사회과학
경성대	사회과학	상지대	사회과학	영산대	지역통상	한국외대	사회과학
경원대	사회과학	서강대	동아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
경희대	국제평화	서경대	통일문제	우석대	통일문제	한남대	사회과학
계명대	정책	서울대	사회과학	울산대	사회과학	한림대	한림과학
고려대	평화	서울사이버대	통일문제	원광대	통일문제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관동대	동북아평화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이화여대	한국여성	한성대	동아시아
국민대	사회과학	서원대	사회과학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한세대	통일문제
군산대	현대이념	선문대	평화사상	인천교대	통일교육	한신대	평화
단국대	정책과학	성균관대	사회과학	인천대	평화통일	한양대	통일정책
대구가톨릭대	통일문제	성신여대	사회과학	인하대	국제관련	혜전대	사회과학
대구대	사회과학	세종대	통일문제	전남대	아태지역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대전대	동북아	수원대	통일문제	전북대	사회과학	호서대	통일문제
대진대	북방	숙명여대	통일문제	전주대	사회과학	홍익대	인문과학
동국대	북한학	순천대	사회과학	제주대	동아시아		
동신대	민족통일	순천향대	사회과학	조선대	통일문제		
동아대	사회과학	송실대	사회과학	중부대	평화통일		

[제22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대 학	논 문 제 목
최우수	김정기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탈북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임성철		
우 수	김성철	성결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북 경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진출 중소기업 사례 분석
	김지철		
	이원경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4년)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 관심집단 통일교육방안
장 려	김수현	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남북한 관광교류가 대학생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미화		
	최용혁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금강산 관광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박지선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UN체제를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 국제기구와 UN사무총장 역할 중심으로

나. 사회통일교육 지원

(1) 통일교육협의회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 단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원

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3년 12월 말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7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경비 일부를 보전하여 회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과위는 대상별로 정책개발·청소년·여성·시민·지역분과위 등 5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도의 주요사업으로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등 일상적 사업, 연구사업, 여성·청소년·지역주민·시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사업, 정기통일강좌·통일포럼·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03.12.31 현재(87개 단체)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남북농업발전협력기간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화교류재단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방문제연구소	부산여성회
다물민족연구소	세계평화여성연합	북한연구소
대한민국팔각회	굿네이버스	부천시민센터
대한 YMCA 연합회	여성사회교육원	북한문제연구협의회
민족통일촉진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천시민연합	좋은 벗들	세계평화청년연합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통일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통일경모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시대충북연대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통일기념사업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건국민족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청년회의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자유총연맹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민족통일촉진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민족복지재단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통일철학회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남북소년통일교류회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눔기협의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주연맹	

(2) 통일교육전문위원 활동 지원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해 왔으며, 이들을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국론통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67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평균 250만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2003년에는 전문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연찬교육 7회, 지역순회 세미나 10회, 통일대화의 광장 1회, 구사회주의권(동구권)체험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참고 자료 15종 38,000부를 제공하였고, 우수활동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15명), 통일부장관 표창(28명)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였다.

다. 북한관 운영 지원

북한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통일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은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7개 북한관에 영상기자재를 지원하였고, 북한관 안내리플렛 20만부를 발간·배포하였으며,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반영한 북한관 전시패널 6종 60개를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관은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기획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관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 총 427만 명의 국민이 북한관을 관람하였다.

[북한관 현황]

2003.12.31 현재

구분	위 치	개관일	운영기관	전시내역	휴관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동화진흥 (주)	판넬: 50점 실물: 1,197점	연중 무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05점 실물: 723점	연중 무휴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48점 실물: 650점	월요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광주광역시	판넬: 89점 실물: 742점	월요일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60점 실물: 727점	월요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판넬: 37점 실물: 911	연중 무휴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주) 통일전망대	판넬: 42점 실물: 61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1.25	(주) 임진각	판넬: 49점 실물: 543점	연중 무휴
강원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44점 실물: 606점	화요일
강원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55점 실물: 804점	월요일
경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33점 실물: 687점	월요일
대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3-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	'01.8.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판넬: 50점 실물: 200점	연중 무휴

4.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교재에서는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국제환경 및 북한의 실상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보편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청각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이를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콘텐츠와 연계함으로써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003년도에 개발된 주요 통일교육 교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를 개편 발간하였다. 이들 교재는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북한실상을 반영하여 통일문제 및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통일문제의 기본쟁점을 해설한 「통일문답」을 개편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진작하고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통일교육총서」도 3권을 추가 발간하였다.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제Ⅴ권)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현장에서 활용가능한지도안을 담고 있고, 「남북 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제Ⅵ권)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한 책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생활에 나타난 북한언어정책의 영향」(제Ⅶ권)은 북한의 언어정책의 내용과 이 정책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고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를 기획하여, 그 첫 번째로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간하였다. 또 「통일교육 표준강의안 - 평화변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에서는 전달교육자들이 일선 통일교육현장에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에는 통일교육용 영상교재 개발에도 진력하여 총 6종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우선 대상별 교재 개발의 일환으로 평화변영정책 영상교재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제작하여 금강산 관광객의 방북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북한 만화영화의 이해」,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남북문화이해지」등 ‘북한바로알기’ 시리즈 5종을 개발·보급하였다. 이 영상교재는 일반국민의 북한이해 입문과 함께 중·고교 도덕·사회과 수업자료로 병행이 가능하도록 주제를 선정 개발하고 있다.

이중 2003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는 약 1,000부가 전국 40여개 대학의 통일관련 강좌의 교과서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다. 또 ‘북한바로알기’ 영상교재와 통일교육총서 및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일부분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으로부터 판권사용협조를 받아 해당 교육기관에서 복제·발간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 주요 통일교육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발간부수(수량)	형 태
「2003 통일문제 이해」	16,200	책 자
「2003 북한 이해」	16,800	책 자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6,000	책 자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	2,000	책 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난 북한언어 정책의 영향」	6,000	책 자
「통일 문답」	15,000	책 자
「북한방문 길라잡이」(수정판)	5,000	책 자
「남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10,000	책 자
「통일교육 표준 강의안」	1,000	책 자

제4절 북한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 주요 실태·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가. 북한 주요 실태·동향 분석

최 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동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내적으로 제2기 김정일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선거 및 제1차 회의 개최, 정권창건 55돌 등 정치동향 변화,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추진 동향을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의 추가 지정, 학제개편, 주민사

회의식 변화 등을 진단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02년 10월에 불거진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 입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향을 진단하는데 주력하였다.

대남면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운 교류·협력 추진 동향과 함께 그 변화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500여 건의 내부보고서를 적시에 분석·공급하였다.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각종 회의 등을 수시 개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북한에 대한 시각의 편향성을 제거하여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2003년 북한 관련 주요 분석 현황]

구 분	자 료 명	시기(月)
대 내	2003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휴대전화 및 전국 컴퓨터망 개통	1
	김정일 위원장 61회 생일행사 동향	2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 개최 최근 북한의 '민족전통문화' 강조 배경 분석 중유공급 중단 이후 북한의 전력증산 강화동향	3
	인민생활공채 발행 '내각공보' 발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 추진	4
	북한의 SARS 관련 대처동향	5
	경제개혁 확대 추진방침 천명 영문국호 「Corea」 표기 주장 분석	6
	최근 북한의 대외교역 동향 평가 최근 북한사회의 영웅적 분위기 조성 동향	7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 결과 최근 북한 IT·통신부문 주요 동향	8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관련 동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 결과 정권창건 55돌 기념행사 동향 최근 경제개혁 추진동향	9
대 외	NPT 탈퇴 관련 「정부성명」 발표 러시아 대통령 특사 방북	1
	「한·미 공동성명」 관련 북한반응 분석	5
	중국정부 특사 「다이방귀」 방북	7
	6자회담 관련 북한입장 설명 분석	8
대 남	「아·태평화위」, 현대의 대북송금 관련 성명	2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개최 결과	3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등 발표	6
	정몽헌 회장 사망 관련 추모동향	8

구 분	자 료 명	시기(月)
대 내	노동당 창당 58돌 관련 동향 북한의 통신부문 인프라 강화 동향	10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 금년도 1-9월중 대중·일 교역동향 금년도 도시정비 및 주택건설 동향 금년도 북한 공업부문 동향 평가	11
	금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금년도 북한의 체제결속 강화 동향 금년도 김정일 현지지도 특징 분석 2003년 북한동향 평가 및 2004년 전망	12
대 외	외무성 대변인,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억제력 강화용으로 용도변경' 담화 외무성 대변인, '때가 되면 핵억제력 공개' 회견	10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시 '핵계획 포기용의' 표명	11
대 남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 발표	10
	개성공업지구 관련 각종 하위규정 채택	12

※ 상기자료는 대부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나. 자료 발간

「주간북한동향」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실상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3년에도 북한의 정세변화의 추이와 분야별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평가한 「주간북한동향」을 624호부터 675호까지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매주 유관기관과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및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해 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4년 전 발간된 북한개요 개정판인 「2004 북한개요」(2003.12)를 다시 발간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북한사회가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간의 변화내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12월에 출간한 「2004 북한개요」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 상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1999년 말에 발간된 「2000 북한개요」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개요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서점에서 처음으로 시판 중에 있다. 이것은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국민적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 및 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를 발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주요행사에정표」를 발간하였으며, 북한의 당, 행정기관, 입법 및 사법기관, 단체의 조직들을 망라하여 도표화한 「권력기구도표」를 발간하여 주요기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최근 북한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북한경제 관련 동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2003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2003년도 경제정책 방향, 재정·예산, 주요 산업별 동향,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동향 등이며 부록으로 주요 경제 일지도 수록하였다.

2. 신진연구자 지원

정부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신진연구자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40세 이하의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 신진연구자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대학, 연구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북한의 교육문제 4건, 사회통제 관련 3건, 경제분야 3건, 탈북자문제 2건, 교류협력 2건, 사회 1건, 환경문제 1건이며,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변화상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가 두드러졌다.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신진연구자 논문집(전 3권)으로 발간, 배포되었다.

[2003년 신진연구자 명단]

성 명	소 속	과 제 명
강호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북한 산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선군정치의 노동규율 재강화
김영호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민간 통일운동의 변천과정과 현황 연구
김재기	전남대 아태지역연구소 전임 연구위원	한민족 '경제·문화 공간'으로서 중국 조선족 집거구 연구
송경석	호서대학교 교수	WTO/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송정호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일성의 '5·25교시' 전후 경제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원새연	수원오목초등학교 부장교사	구조중심의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미식	부산대 강사	영화 텍스트 읽기를 통한 통일교육 교수
이은경	한국외국어대 강사	북한 현대문학에 나타난 러시아 '농촌산문'과 '짧은 산문'의 테마
이철수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7·1조치와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전영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김정일시대 사회패러다임으로서 종자론 연구
정형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초기조건
조정아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북한 중등학교 규율 연구
채정민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지각 수준과 해소방안
최명길	국민대 법대 조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법제에 양안의 투자장려 관련
황재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로에 선 북한의 배급제도

3.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 6층에 소재한 「북한자료센터」는 도서자료 6만 여권, 정기간행물 1만 여권, 파일자료 4천여 건, 시청각자료 6천여 건, 부내생산물 4천여 건 등 총 8만7천여 건의 북한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자료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북한영화 상영은 2000년부터는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의 5개 지방도시의 북한관으로 확대하여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543회 상영되어 103,239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누적 총계는 3,025회 502,771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19회 열렸으며, 2,080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총 316회가 개최되었고, 22,315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였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94권을 공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해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통일부 발간물 115권 28,981쪽을 D/B화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 말까지 북한원전 등 총535권 190,218쪽을 D/B화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관계기관의 요청 시 북한 반입 및 공개자료를 심의해 오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에는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를 43회 4,884건, 북한자료공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에는 총 242회 33,211건을 심의, 반입을 허용하였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인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